

정신지체 아동의 직유 이해에 관한 연구

신후남(대구대), 박희정(광주여대), 권도하(대구대)

<차 례>

- | | |
|---------------|--|
| 1. 서론 | 3.1. 정신지체 아동과 정상 아동의 직유 이해 능력 비교 |
| 2. 연구 방법 | 3.2. 정신지체 아동과 정상 아동의 수용어휘 발달과 직유 이해 능력과의 상관관계 비교 |
| 2.1. 연구 대상 | 3.3. 정신지체 아동과 정상 아동의 직유 이해의 오류 유형 비교 |
| 2.2. 검사 도구 | |
| 2.3. 연구 절차 | |
| 2.4. 자료 분석 | |
| 3. 연구 결과 및 고찰 | 4. 결론 및 제언 |

<Abstract>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for Simile Comprehension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Hu-Nam Shin, Hee-Jung Park, Do-ha Kwon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a simile comprehension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mental retardation. Thirteen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nd ten normal children with matched receptive vocabulary ability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y were between five and eight years old in the age of receptive vocabulary. Fourteen picture plates were used and each plate consisted of three pictur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made significantly more errors than normal children in the comprehension of simile. Second, mental retard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did not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receptive vocabulary development and comprehension of simile. Finally, on simile interpretation type,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were likely to think a tenor into a vehicle because they failed to recognize the syntactic structure of simile, 'A is like B'.

Thus, It is important to teach mental retarded children the syntactic structures of simile and to provide them with a variety of experience as well as to let them know an exact meaning of words.

1. 서 론

신문, TV나 광고, 문학작품 등에서 사용되는 말과 글들뿐만 아니라 수학, 음악, 춤, 시각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일상대화의 많은 부분이 비유 언어(figurative language)로 가득 차 있다. 아동들의 읽기 책에서도 비유표현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유 언어가 영어의 삼분의 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유(simile), 은유(metaphor), 관용어(idiom) 등을 포함한 이러한 비유 언어에 대한 지식은 언어의 이해력에 영향을 준다[1]. 그리고 언어를 보다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2], 대화에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므로 매우 경제적이고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3]. 한 예로, 어떤 사람이 “그 간호사는 천사야.”라는 말을 하였을 때 대화의 상대자는 두 요소간의 유사성 즉, 간호사의 어떤 착한 행동이나 마음 상태와 천사 사이에 유사성을 찾아내어 해석하게 된다.

이처럼 비유는 유사성 차원이나 유추적인 관계의 관점에서 각각 다른 영역을 대표하는 두 개의 다른 단어나 더 큰 문장요소들을 관련시키는 언어 형태이다[4]. Gibbs 등[5]에 따르면, 비유는 인지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특히, 추상적인 개념들이 정보에 대한 은유적 연결(mapping)을 통해 친숙한 영역에서 덜 친숙한 목표 영역으로 구조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생은 여행이다.’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리적 ‘여행’에 대한 지식과 ‘인생’에 대한 지식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서 ‘인생’을 은유적으로 개념화시킨다. 이러한 비유적 언어의 이해와 사용과정은 통사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높은 이해와 인식의 단계에서 다양한 세상사 지식 및 경험 등과 관련된 의미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차원에서 접근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3]. 결국 요약하면 비유는 단어 본래의 문자적 의미에서 벗어나 두 단어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른 개념으로의 인지적 전이를 하는 것이므로 각 단어에 대한 의미이해 이상의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유 언어에 관해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어휘 이해능력과의 관련성을 언급해 왔다. Nippold와 Sullivan[6]은 5세에서 7세까지의 정상 아동들은 은유의 이해 및 지각적 유추 능력 모두가 수용어휘 발달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휘 능력과 은유 이해 능력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7, 재인용].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인지에서 손상이 없거나 적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적 결함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사고 능력에서 지체된 정신지체 아동은 그들과 수용어휘 연령이 일치하는 정상아동과 비유 언어 이해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 아동과 그들과 수용 어휘능력이 일치하는 정상 아동에 대해 비유 언어 이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하나의 연구 주제로 삼는다.

그동안 아동들의 비유 언어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은유에 관한 것들이며 이러한 연구들 중의 일부는 언어에 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은유 표현의 이해에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어 지체가 있었던 사춘기 아동들은 은유적 문장에 대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8]. 학습장애 아동들은 정상 아동에 비해 이야기 내용의 끝부분이 은유적으로 꼬여 있을 때 이해를 잘 하지 못하였고, 나이 든 학습장애 아동들은 나이 어린 비학습장애 아동과 유사한 수행력을 보였다[9]. Heghnam 등[10]은 언어장애 아동이 정상 아동과 비교하여 구두적 은유 과제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넓은 점수 범위를 나타내고 특히, 시각적 은유에서도 광범위한 상징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는 5~6세 단순 언어발달장애아동을 언어연령일치 정상아동과 생활연령일치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은유 이해능력을 비교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단순 언어발달장애아동은 은유를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지각적 은유 및 심리적 은유에서도 낮은 수행을 보였다[11].

이상과 같이 일반적으로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체되어 있음을 잘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직유를 이용한 연구는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유 표현지도 프로그램 연구[1][12]와 학습장애 아동과 비학습장애 아동의 직유 및 은유이해력을 비교한 연구[9]들로 소수에 불과하다. 직유는 은유에 비해 이미지의 창조가 비교적 약하고, 비유어만 가지고 의미해석을 할 때는 은유에 비하여 비교적 쉽다[13]. 무엇보다 ‘같이’, ‘처럼’, ‘인양’ 등과 같은 문법적인 표면 구조가 표시되어 그 비교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은유에 비해 의미 해석이 쉽다. Seidenberg와 Bernstein[9]는 연구에서 학습장애 아동과 비학습장애 모두가 은유에 비해 직유 상황에서 더 나은 수행력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초기의 비유 언어는 대개 물리적인 닮은꼴이나 기능의 유사성에 바탕 둔다[2]는 측면에서 ‘A is B’ 즉, ‘비유 주체=비유 대상(예, 우리 아빠는 호랑이다.)’이라는 은유적 표현보다는 ‘A is like B’ (예, 우리 아빠는 호랑이 같다.)라는 직유 표현이 초기 비유 언어에 가까울 것이므로 직유에 대해 우선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고 분석, 비교, 종합하는 사고 능력이 주로 결여되어 있는 정신지체 아동에 대해 그들의 직유 이해에서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정신지체 아동과 수용어휘 연령이 일치하는 정상 아동간에 직유 이해능력에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정신지체 아동과 수용어휘 연령이 일치하는 정상 아동간에 수용어휘 연령과 직유 이해능력과의 상관관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정신지체 아동과 수용어휘 연령이 일치하는 정상 아동간에 직유 이해의 오류 유형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부산에 거주하는 아동들로 연구 대상의 선정기준이 되는 수용어휘 연령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어휘력 검사[14]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수용어휘 연령이 5세 0개월에서 8세 11개월 사이에 있는 정신지체 아동 13명과 이 아동들과 수용어휘 연령을 맞춘 정상 아동 10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정신지체 아동집단의 경우 (1)장애진단기관(주로 개인 소아정신과병원)에서 정신지체로 진단 받은 것으로 담당 언어치료사가 보고한 아동들 중에서, (2)취학을 바로 앞두고 있거나 검사 당시 초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이며, (3)시·청각과 같은 감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들로 구성하였다.

정상 아동집단의 경우는 (1)담당 어린이집 교사나 부모에 의해 정상적인 언어 발달 및 지적발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된 아동들 중에서, (2)그림어휘력 검사 결과 정신지체 아동들과 동일한 수용어휘 연령대에 속하는 아동들로 구성하였다.

한편 그림어휘력 검사에서 6개월 단위로 나온 등가연령에 대해서는 연령 단계의 평균연령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5세 5개월~5세 11개월>의 경우 5세 8개월로 처리하였다.

대상 아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 1>에서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아동의 특징

집단	아동 수	평균 생활연령	수용어휘 연령			
			평균	최소값	최고값	표준편차
정신지체 아동	13	7세 4개월	6세 5개월	5세 3개월	8세 9개월	14.0
정상 아동	10	5세 11개월	6세 9개월	5세 3개월	8세 9개월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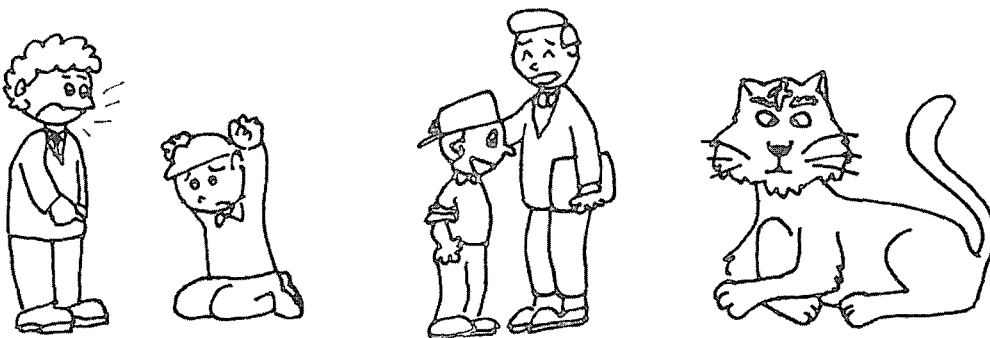
2.2. 검사 도구

본 검사에 사용될 짧은 문장을 선정하기 위해 첫째 (1)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읽기 교과서에서 ‘-같다’, ‘-닮다’, ‘-처럼’, ‘-듯한’ 등의 직유 표시가 있는 문장 중에서, (2)그림 자료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국한한 후, (3)‘쟁반같이 둥근 달’처럼 문장 속에서 비유 주체(예, 달)의 이해를 도울 가능성이 있는 단서 낱말(예, 둥근)을 생략시키고, (4)직유 표시 중에서 ‘-같은’을 모두 사용하여 짧은 문장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3학년 읽기 교과서 속의 ‘네 꼬리는 호박덩굴처럼 꼬불꼬불하잖아.’를 ‘호박덩굴 같은 꼬리’로 바꾸었다. 둘째,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척도[15]에 포함된 검사 문항 중에서 ‘고사리 같은 손’, ‘사과 같은 얼굴’을 그대로 가져왔다. 셋째, (1)우리말 관용어 사전[16] 속에서 ‘-같은’에 의해 표현된 관용 직유 중에서, (2)그림 자료로 표현할 수 있는 관용 직유로 국한한 후, (3)3명의 언어치료 박사과정 학생 모두가 일상적인 관용 직유라고 동의한 것을 검사문항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정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짧은 직유 문장이 16개(연습문항 2개 포함)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목표 그림과 두개의 방해 그림을 A4 크기의 한 종이에 흑백의 선으로 하여 무작위 순서로 그려서 제작하였다. 두개의 방해 그림 중에서 하나는 비유대상을 그대로 그린 것이며 하나는 비유 주체와 유사한 내용의 그림이다. 검사 문항과 예(검사문항 2의 ‘호랑이 같은 선생님’)가 되는 그림판은 <표 2>와 <그림 1>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2> 연구에 사용된 연습 문항 및 검사 문항

연습 문항			
문항 1	쟁반 같은 달	문항 2	거북이 같은 걸음
검사 문항			
문항 1	사과 같은 얼굴	문항 8	떨어놓은 오이 같은 코
문항 2	호랑이 같은 선생님	문항 9	병아리 같은 아기
문항 3	왕방울 같은 눈	문항10	닭똥 같은 눈물
문항 4	돼지 같은 형(오빠)	문항11	천사 같은 수영이
문항 5	새털 같은 걸음	문항12	새싹 같은 아랫니
문항 6	고래 등 같은 기와집	문항13	호박덩굴 같은 꼬리
문항 7	앵두 같은 입술	문항14	고사리 같은 손



<그림 1> 그림판의 예(‘호랑이 같은 선생님’)

2.3. 연구 절차

아동이 실시 절차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개의 연습문항을 먼저 제시하였다. 아동이 두 차례의 연습문항에도 불구하고 세 개의 그림 중에서 가장 알맞은 그림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반응의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검사는 모두 검사자와 아동이 조용한 방에서 일대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10분이 소요되었다.

검사 결과, 아동이 적절하게 직유를 이해한 경우에 1점, 다른 두개의 잘못된 답을 한 경우에 0점으로 채점하여 14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아동이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유 주체의 오류 유형에 대해 비유 대상으로 반응, 유사 의미로 반응 등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쟁반 같은 달'을 듣고 비유 대상인 '쟁반'으로 반응하였는지 아니면 비유 주체인 '달'로 지각하되 '둥근 달'이 아닌 유사한 '반달'로 반응하였는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2.4. 자료 분석

먼저 직유 이해능력에서 정신지체 아동 집단과 정상 아동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Pearson상관관계를 사용하여서는 정신지체 아동 집단과 정상 아동 집단 각각에 대해 수용어휘 발달과 직유 이해 능력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집단에 대해 직유 이해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오류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 이며, SPSS(version 1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이용된 종속변수들은 독립변수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3.1. 정신지체 아동과 정상 아동의 직유 이해능력 비교

정신지체 아동 및 수용어휘 연령을 맞춘 정상 아동간의 직유 이해능력을 비교한 결과를 <표 3>에서 제시하였다.

<표 3> 정신지체 아동과 정상 아동의 직유 이해능력 비교

집단	아동 수	평균치	표준편차	범위	자유도	t	p
정신지체 아동	13	6.77 점	2.39	3-10	21	-2.91	.008*
정상 아동	10	9.40 점	1.78	7-12			

*p <.05

Levene 검정을 이용하여 오차분산의 동일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 .186으로 두 집단의 분산의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지체 아동과 정상 아동의 직유 이해능력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이 수용어휘 연령에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직유 이해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신지체 아동들이 제시된 두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두 단어간의 유사성을 유추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같은’과 같은 직유의 구조에 대한 구문 지식의 부족이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신지체 아동들은 제시된 검사 문항에 대해 문항의 시작에 나오는 비유 대상에 해당하는 그림을 지적하는 경향이 많았다. 예를 들어, ‘사과 같은 얼굴’의 문항에 대해 정신지체 아동은 ‘사과’그림을 주로 가리키는 반면에, 정상 아동은 대부분 바르게 지적하거나 틀린 반응으로는 ‘짱그린 얼굴’의 그림을 지적하였다. 셋째, 언어 경험의 부족이 한 원인일 수 있다. 하길종[13]에 따르면 은유이해는 언어경험이 중요한데, 정신지체 아동은 주위 사람들과의 언어적 교류의 필요성을 덜 느끼므로 타인과의 교류가 적다[17]. 본 연구에서 정신지체 아동들은 의미 있는 통계수치는 아니지만 정상 아동집단에 비하여 ‘닭똥 같은 눈물’, ‘고사리 같은 손’과 같은 관용 직유의 이해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Nippold 등[18]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은 아동들은 나이 어린 아동들에 비해 과거에 이러한 문장을 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은유 이해력 과제에서 더 우수한 수행을 보인다고 하여 비유 언어의 이해에서 언어 경험이 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제시하였다. 청각장애 아동에 대해 문맥 유무에 따른 은유이해 차이를 비교한 연구[7]에서는 읽기 경험이 은유이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한편, 정신지체 아동 집단이 정상 아동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점수 범위가 넓고 점수가 낮다는 것이 두드러진다.

3.2. 정신지체 아동과 정상 아동의 수용어휘 발달과 직유 이해능력과의 상관관계 비교

정신지체 아동과 정상 아동에게 각각 수용어휘 발달과 직유 이해능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서 제시하였다.

<표 4> 수용어휘 발달과 직유 이해능력과의 상관관계

집단	아동 수	분류	평균치	표준편차	상관계수	p
정신지체 아동	13	수용어휘 발달	6세 5개월	13.99	.006	.985
	13	직유이해 능력	6.77 점	2.39		
정상 아동	10	수용어휘 발달	6세 9개월	14.55	.428	.217
	10	직유이해 능력	9.40 점	1.78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정신지체 아동집단과 정상 아동집단 모두에서 수용어휘 발달과 직유 이해능력과는 각각 $r=0.006$ 과 $r=0.42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6]과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7]에서 모두 수용어휘 발달과 은유 이해능력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는 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유추된다. 첫째, 정신지체 아동들은 대부분 이전에 언어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검사 당시까지도 치료를 계속 받아오면서 개별 어휘들의 이해능력은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짧은 문장 속의 두 어휘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유사성을 유추하여 해석하는 능력에서는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료 현장에서는 낱말의 어휘를 별개로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수의 어휘를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비유주체와 비유대상의 각 속성을 인식하고 유사성을 찾는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상 아동집단을 정신지체 아동집단의 수용어휘 연령과 맞추는 과정에서 만 5~6세 어린이집 아동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 책에서 선정한 일부 짧은 직유 문장 속에 이들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선행 연구들에서는 ‘[비유 주체]는 [비유 대상]이다.(예, 우리 아빠는 호랑이다.)’ 구조의 은유 표현으로 비유 주체와 비유 대상이 차례대로 나열된 단순한 형태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같은’ 직유 표시를 사용하면서 ‘[비유 대상]+같은+[비유 주체]’(예, 호랑이 같은 우리 아빠)’ 구조로 비유 주체와 비유 대상이 역으로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구문구조의 복잡성이 정상 아동뿐만 아니라 특히 정신지체 아동들에게 부수적으로 직유 이해에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해석된다. 나아가 이러한 점은 직유법 지도에 있어서 직유 표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법형태소의 발달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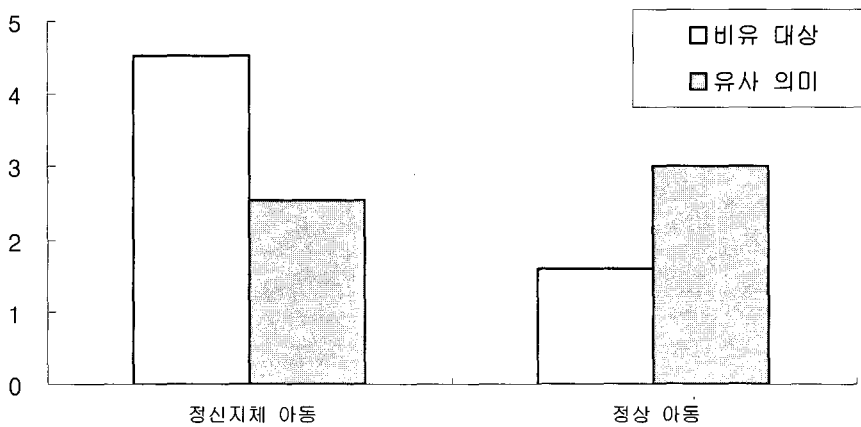
3.3. 정신지체 아동과 정상 아동의 직유 이해의 오류 유형 비교

정신지체 아동과 정상 아동이 직유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그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5>과 <그림 2>에서 제시하였다.

<표 5> 정신지체 아동과 정상 아동의 오류 유형 비교

집단	아동 수	비유 주체의 오류 유형				F	p
		비유 대상		유사 의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신지체 아동	13	4.54 점	2.73	2.54 점	1.39	5.54	.027*
정상 아동	10	1.60 점	1.58	3.00 점	1.89	3.24	.089

*p <.05



<그림 2> 정신지체 아동과 정상 아동의 오류 유형 비교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지체 아동과 정상 아동의 오류 유형에 따른 일원 분산분석 결과 정신지체 아동은 비유 주체를 비유 대상으로 오류하는 유형과 비유 주체와 유사한 의미로 오류를 보이는 유형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정상 아동은 두 오류 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2>는 오류 문항의 수에 대한 평균을 집단별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정신지체 아동은 검사자가 들려준 문항에 대해 비유하는 대상(주체)을 비유되는 대상으로 반응하는 빈도가 더 잦았다. 예를 들면, ‘호랑이 같은 선생님’ 표현을 듣고 비유 주체인 ‘선생님’보다는 비유 대상인 ‘호랑이’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정상 아동은 실제 비유 주체에 보다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예를 들면, ‘호박덩굴 같은 꼬리’ 표현에 대해 비유 주체인 ‘꼬리’를 지적하되 꼬불꼬불한 원숭이 꼬리가 아닌 짧고 뭉툭한 토끼 꼬리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정상 아동은 비유 주체를 인식하되 오류가 발생한 것이며 정신지체 아동은 비유 주체에 비해 특성이 강한 비유 대상으로 반응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지체 아동이 두 단어간의 유사성을 찾아 해석하는 능력에서뿐만 아니라 ‘같은’의 직유 표현의 문법적인 구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수용어휘 연령이 5세에서 8세 사이의 정신지체 아동이 수용어휘 연령이 일치하는 정상 아동과 비교하여 직유 이해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유 이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용어휘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오류 유형에서 정상 아동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정신지체 아동은 수용어휘 연령이 일치하는 정상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직유 이해능력을 나타내었다.

둘째, 정신지체 아동과 수용어휘 연령이 일치하는 정상 아동 모두는 수용어휘 연령과 직유 이해능력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정신지체 아동은 수용어휘 연령이 일치하는 정상 아동과 비교하여 비유 주체에 대해 비유 대상으로 반응하는 오류 유형을 주로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연구 결과가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 및 치료사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첫째, 정신지체아동은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 이해는 가능하지만 두 단어가 가진 의미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른 개념으로의 인지적 전이가 어렵다. 그러므로 치료 현장에서는 비유 주체와 비유 대상의 유사성 찾기(예, 빨간 코와 딸기), 동화 책이나 동시 속의 직유 표현 찾기(예, 새털 같은 구름), 직유 문장 만들기(예, 코끼리의 코는 -처럼 생겼다.)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에게 우선 다양한 직유 표현의 경험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유를 표시하는 문법형태소로는 ‘같이’, ‘처럼’, ‘-인 듯’, ‘-인 양’ 등으로 다양하며 ‘같은’, ‘-같이’, ‘-같다’처럼 똑같은 직유 표시라도 문장에서 문법적인 역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해와 표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도에 있어서 각 직유 표시의 구문적인 지식의 요구 정도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아동들의 직유 이해력을 알아봄으로써 다소 실제 장면에서 어색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학교에서의 학습 상황과 또래와의 대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직유 표현에 대한 샘플 수집을 통해 좀더 실질적인 지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과 검사문항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아동에 대하여 다양한 검사문항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M. A. Smith, P. J. Schloss, "Evaluation of a simile recognition treatment program for hearing-impaired studen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Vol. 51, pp.134-139, 1986.
- [2] 이승복, 이희란, *언어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 [3] 이종열, *비유와 인지*, 서울: 한국문학사, 2003.
- [4] 안신호, 이유갑, "아동의 비유이해에서의 직유표현의 효과", *심리학의 연구문제*, 3권, pp.93-110, 1988.
- [5] R. W. Gibbs, Jr., J. M. Bogdanovich, J. R. Sykes, D. J. Barr, "Metaphor in idiom comprehens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Vol. 37, pp.141-154, 1997.
- [6] M. A. Nippold, M. P. Sullivan, "Verbal and perceptual analogical reasoning and proportional metaphor comprehension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Vol. 30, pp.376-376, 1987.
- [7] 김영옥, 원성옥, 김지숙, 이운선, "청각장애 아동의 은유 이해",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5권, pp.257-272, 2006.
- [8] M. A. Nippold, M. Fey, "Metaphor understanding in preadolescents having a history of language acquisition difficulty",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Vol. 14, pp.171-180, 1983.
- [9] P. Seidenberg, D. Bernstein, "The comprehension of similes and metaphors by learning by learning-disabled and nonlearning-disabled children",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Vol. 17, pp.219-229, 1986.
- [10] C. L. Highnam, J. Wegmann, J. Woods, "Visual and verbal metaphor among children and language disorder",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 Vol. 32, pp.25-35, 1999.
- [11] 홍윤희, "단순언어발달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의 은유이해 능력 비교; 지각적 은유와 심리적 은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2] A. E. Iran-Nejad, A. Ortony, R. Rittenhouse, "The comprehension of figurative Uses of English by deaf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Vol. 24, pp.551-556, 1981.
- [13] 하길종, "직유표현의 유형-의미에 따른 분류", *이중언어학회*, 23호, pp.307-326, 2003.
- [14]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그림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복지관, 1995.
- [15]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PRES)*, 서울: 서울장애인복지관, 2003.
- [16] 박영준, 최경봉, *관용어 사전*, 경기: 태학사, 2001.
- [17] 김영환, *정신박약아 언어*, 대구: 도서출판 특수교육, 1991.
- [18] M. A. Nippold, L. B. Leonard, R. Kail, "Syntactic and conceptual factor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metapho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Vol. 27, pp.197-205, 1984.

접수일자: 2006년 11월 10일

게재결정: 2006년 12월 18일

▶ 신후남(Hu-Nam Shin) : 교신저자

주소: 705-714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88번지

소속: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전화: 053) 650-8273

E-mail: hnshin2000@hanmail.net.

▶ 박희정(Hee-Jung Park)

주소: 506-7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전동 165번지

소속: 광주여자대학교 치료특수교육학과

전화: 062) 950-3704

E-mail: hjpark-02@hanmail.net.

▶ 권도하(Do-Ha Kwon)

주소: 705-714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88번지

소속: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전화: 053) 650-8273

E-mail: dhkwon210@hanmail.net.